

인사청문 정국... 여야 '공수처·법무' 일정부터 신경전

'환경' 한경에 20일 개최 합의... '공수처' 김진욱 18·19일 조율 '법무' 박범계, 여 "22일 개최" vs 야 "현미경 검증위해 월말에 해야"

여야가 연초 잇따라 인사청문회를 두고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어떻게든 검증은 마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현미경 검증'을 버리는 국민의힘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만간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까지 이뤄지면 내달까지 청문정국이 이어지게 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정에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노위는 오는 14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법무부 소관 상임위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주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에 신경 쓰느라 청문회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2일로 요구했다. 1월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고려한 일이다.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경우 18~19일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추미에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 일정 협의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쯤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 주 안에 '중량급' 청문회를 들

다 하기는 어렵다"며, 줄속 검증은 막으려면 박 후보자 청문회를 "1월 마지막 주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책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김 후보자에겐 위장전입 의혹과 4년 전 바이오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전근·유학으로 인한 주소 이전이라며 위장전입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주식 취득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가 측근의 금품 수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충북 영동의 선산을 국회의원 당선 뒤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고, 다주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인 소유 대구 주택과 상가를 친인척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태세이며,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책임자"라며 야당 공세에 방어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대응 중대본 회의 전체행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vs 이상호 2파전 되나

민주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 경선...박주민 고심 깊어져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굳어지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0일 "박주민 의원이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경선에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측면에서 고민이 깊다고 한다"고 말했다.
설 이전에 치러지는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박 의원이 불출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초 예상한 3파전이 아닌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속에 중소기업 주무부처 수장으로의 경험을 내세워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한 이상호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대표였던 경력 등을 나열하며 "가장 민주당다운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출마선언 때 공약한 '공공주택 16만호'의 세부 정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불평등·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주자들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특정 서울시장 후보, 여야 후보들을 초대해 선거 홍보에 활용할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주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까지 함께 겨냥한 발언이다.
박주민 의원의 고심 끝에 막판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양자 대결이 될 경우 10여명이 앞다투어 출마하는 야권에 비해 흥행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 추천 효력 유지

법원, 집행정지 각하...야 "항고 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추천 위원들과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회귀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번 각하 결정은 최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신정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목살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으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날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국회 제34대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이춘석 전 의원이 임명됐다.
10일 국회는 "지난 8일(금) 제38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이며 한양대법학과를 졸업,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외부인사 예비경선 면제 검토

공천관리위, 특례조항 논의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 유력주자들의 예비경선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8일 시작하는 경선 후보 등록 전에 외부 인사가 당에 합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후보 단일화에 대비한 사전 정치작업의 일환인 셈이다.
당 관계자는 1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대표를 만나 '경선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던 만큼, 당 밖의 인사들에게 언제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근 공천관리위 회의에서도 예비경선에 참여

하지 않은 외부 인사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지지율이 나올 경우 본경선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헌 당규상 당원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일단 문호 확대에는 환영 입장을 보이며 단일화 자체에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가 국민의힘의 틀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 틀을 기반으로 하되 개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앞서 국민의힘이 본경선을 100% 시민경선으로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 "적어도 후보단일화의 공통분모는 만들어졌다"며 "절충점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환영했다.
/연합뉴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동구 대인동, 싼 땅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